

광주 그랜드 호텔도 문닫았다



22년간 영업을 해오다 경매 절차를 밟고 있는 광주 그랜드관광호텔의 문이 4일 굳게 닫혀 있다.

광주시 구 도심의 대표적인 호텔로 22년간 영업을 해왔던 동구 불로동 '그랜드관광호텔'이 사실상 폐업을 하고 경매절차를 밟고 있다.

**도청 이전 등 도심 공동화로 경영난
리버사이드·송선·그랑프리호텔 이어
22년간 영업 끝내고 경매절차 밟아**

알려졌다.

4일 광주시 동구청과 호텔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숙박업을 포기하고 부대시설만 운영하고 있던 그랜드호텔이 최근 모든 영업을 중단하고 체권단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1986년 7월 문을 연 그랜드호텔은 지상 10층, 지하 2층(11만9천195㎡)에 양식 42개와 한실 23개 등 65개의 객실과 부대시설을 함께 운영하였다.

이 호텔은 광주 구 도심의 대표적인 호텔로 한 때 직원 수만 2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호황을 누렸지만 전남도청 이전을 비롯한 구 도심의 공동화로 인해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전남도 등 기관들이 행사 개최장소로 그랜드호텔을 이용하던 고객이었으나, 도청이 무안으로 옮겨간데다 도심 상권까지 급격히 침체되는 등 악재가 겹친 것이다.

숙박업을 포기한 이후에도 임대를 내준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레스토랑이 영업을 계속해왔지만 올해 1월 밀린 전기세를 내지 못해 건물 전체가 단전이 되면서 마지막까지 영업을 하던 나이트클럽 마지막 문을 닫게 됐다.

그랜드호텔이 사실상 폐업하면서 광주에서 호텔이 가장 많았던 동구에는 6개의 호텔만 남게 됐다.

동구지역에는 지난 2003년 초까지 10개의 호텔이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그해 8월 노남동의 리버사이드호텔이 무기한 휴업한 것을 시작으로, 대인동 송선관광호텔(2006년 11월 폐업)과 학동 그랑프리호텔(2007년 4월 폐업)이 줄줄이 영업을 포기했다.

리버사이드호텔은 매년 휴업을 연기해 현재 까지도 휴업상태이며, 송선관광호텔과 그랑프리호텔의 폐업사유에는 '영업부진'이라고 명시돼 있어 경영이 어려워했던 호텔들의 사정을 반영해지고 있다.

현재 동구지역에는 신양파크·무등파크·파레스·하딩크로니털·광주관광·금수장관광호텔 등이 남아있지만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관광호텔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 U-대회 유치 결의

광주 서구 U-대회 범시민자원총진협의회가 4일 광주 서구문화센터에서 회원과 주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하계 U-대회 광주유치 기원 서구민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광태 광주시장, 전주연 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장·구청장 못지킬 공약 많다

경실련 평가... 상당수 재원 확보 못해 실현 불가

재래시장 활성화 등 16개 중복... 정책 수정 시급

광주시장과 5개 단체장의 민선 4기 공약 중 상당수가 재원확보의 어려움

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 수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약이행평가단이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단체장 공약이행평가 결과에 따르면 55개 평가대상 공약 중 16건은 중복사업 또는 헛공약으로 분류됐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LED(발광다이오드) 복지사업, 빛고을 문화 등 공약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자체 역량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은 특급호텔 건립공약 등에 대해서는 수평이나 평가를 받았으며, 일자리 13만4천개 창출 공약의 경우 시와 평가단의 통계

수치가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태명 동구청장은 공약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공약 평가를 진행하고 저소득층 주민 복지사업 등 공약 상당수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주연 서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 공약의 경우 적은 비용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에서 '좋은 평가'로 인정됐다. 하지만 자체 역량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은 특급호텔 건립공약 등에 대해서는 수평이나 평가를 받았으며, 일자리 13만4천개 창출 공약의 경우 시와 평가단의 통계

면, 백운고가 철거 사업은 현재까지 주민 실적이 미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 공약 대부분이 정부나 광주시와 중복된다며 현 단체장 사무가 아닌 점이 인정돼 평가단으로부터 '평가의견 거절'을 당했다.

전갑길 광산구청장의 경우 주민 참여 기본 조례 제정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자동차부품 집적화단지 조성 공약은 사업실적이 전무해 '평가 의견 거절'을 받았다.

한편, 이번 평가는 재원조달 구체성, 재임기간 달성 가능성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25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좋은 평가'는 20점 이상, '낮은 평가'는 10점 이하, '평가의견 거절'은 현 단체장 사무가 아닌 경우로 구분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풍수해보험 전면 시행 5월로 연기

이달부터 도입될 예정이던 풍수해보험의 전국 확대 실시가 5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4일 "풍수해 보험 사업자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고, 전산시스템 개발도 지연됨에 따라 이달 시행 기로 한 풍수해보험 전면 확대실시를

연세대 등 부적격 교수 잇단 퇴출

재임용·정년심사 엄격 적용

KAIST가 최근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자격미달 교수 6명을 탈락시킨 데 이어 연세대, 성균관대 등도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교수들을 잇따라 탈락시켰다. 4일 연세대에 따르면 대학은 최근 재임용을 신청한 비정년 교수 20명 가운데 25%인 5명에 대해 재임용 탈락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들은 채용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임용한 뒤 성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비정년 교수'들이었다

고 대학 층은 설명했다.

성균관대는 최근 재임용 대상 교수 33명 가운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자연과학계교원 5명을 심사에서 탈락시켰고, 성대는 앞서 2006년에 교수 1명을 재임용 심사에서 떨어뜨리고 지난해는 의대 임상교원을 포함해 6명을 탈락시켰다.

한양대에서도 자체 기준인 전공별 SCI 등등 논문 수를 채우지 못한 이

공개 조교수와 부교수 등 8명이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고 경희대는 탈락한 2명에게 1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 21일 광주·전남 방문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경기), 14일 문화관광부(강원), 17일 지식경제부(대구·경북), 18일 농수산식품부(전북), 20일 교육과학기술부(충남·북), 21일 환경부(부산·경남), 24일 국토해양부(부산·경남) 업무보고는 부처 본부가 아닌 지방의 산하기관에서 받기로 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국정운영에 주력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에 친환경 농산물 물류기지 조성 추진

이대통령 호남공약 사업

전남도, 유치 의사 전달

전남도가 이명박 대통령의 호남권 8대 공약 중 하나인 '친환경 글로벌 농산물 물류기지' 조성 사업의 추진에 나섰다.

친환경 글로벌 농산물 물류기지 조성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FTA를 대비, 세계시장을 겨냥해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친환경 농산물을 적극 육성함과 동시에 첨단 유기농 농수산자원 연구센터 설립을 비롯 생산·가

공·수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농업 협복단지를 호남지역에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물류기는 시카고 선물거래소(CBOT)의 동북아 농수산물저장소를 유치하는 등 고부가가치 창출에 역점을 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전남도는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 선점 차원에서 4일 농림부를 방문, 친환경 글로벌 농산물 물류기지 사업을 조속히 정부계획에 반영해 줄 것과 전남도의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

전남도는 해상 및 항공 운송이 가능한 지역에 생산·가공·수출이 가능한 친환경농식품 물류기지를 건설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첨단화학영농단지와 R&D시설, 시험단지, 서비스산업, 관광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첨단 원예·화훼가 가능한 대형 유리온실 단지 조성을 비롯해 잡배송 센터, 집하장, 저온저장시설 등을 완비, 국내외 물류기업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경력직원(설계·감리) 모집

당사는 종합감리·건축설계·전기 및 소방설계감리업체로써 금번 신규사업기술 용역 참여등 사세 확장과 더불어 21세기를 함께 할 경력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분 및 자격

구 분	분 야	인 원	해 당 공 통 사 항 등
감 리 분 야	◦ 경력 : 토목·기계 ◦ 소방·통신분야	각분야 O명	◦ 경력 : 감리사(환경경력6년)이상 전기·소방·중급이상·통신(비상주) ◦ 공통 : 자격증소지자로써 최근 전문보수 교육 2주이상자 우대
설 계 분 야	◦ 전기 및 소방분야 설계	각분야 O명	◦ 전기 또는 태양광분야 및 소방분야 설계 가능자로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사 무 보 조	◦ 현장사무원 (광산우산동현장)	1명	◦ PC기능자(약 3개월계약직)

2. 제출서류 및 전형방법

- 가. 접수기한 : 2008년 03월 06일부터 해당분야 인원 충원시(03월31일)까지
- 나. 접수처 : 우편번호 : 502-180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66-14(4층)
문의전화 : 062-382-7560 (주)지에이엔지니어링 총무담당자
FAX : 062-382-7565
- 다.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FAX전송 및 본인 직접 접수 가능합니다.
- 라.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지에이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GLOBAL ARCHITECTS & ENGINEERS CO., LTD.
[종합감리·건축설계·전기·소방설계 및 감리업]

결사고고

24시간 FAX 및 E-mail로
접수합니다.

先日銀 當日銀

전화 : (062)-227-9600

FAX : 062-227-9500

E-mail : design@kwangju.co.kr

dd811@hanmail.net

사업계획서

- 상권 분석/사업성 분석
- 브랜드/프랜차이즈 기획
- 관공서 및 금융권 제출용
유동 사업 계획서
- 대형 유통업체 입점 서류

상담환영

유통기획전문회사 062-521-1532

청어람기획 016-266-1532

하나 부동산

☎ 061) 681-8949
☏ 010-8949-6945
www.hana8949.co.kr

여수·한상적인 섬

임야, 만이천평

바다쪽당1萬

여수·화양지구

국도점, 1200평

당, 15萬, 투자300%

돌산바다집한입야

자연녹지, 경관최고

급해서당6萬, 3000평

울촌산단부근입야

4차선계획도점

4000평당5만

여수전지역토지전문

팔분살분 大환영

금 매 국도점

나주·남평 역에서 화순 방향 2km

남향투자 최적지

주말농장 및 선산 최적지</